김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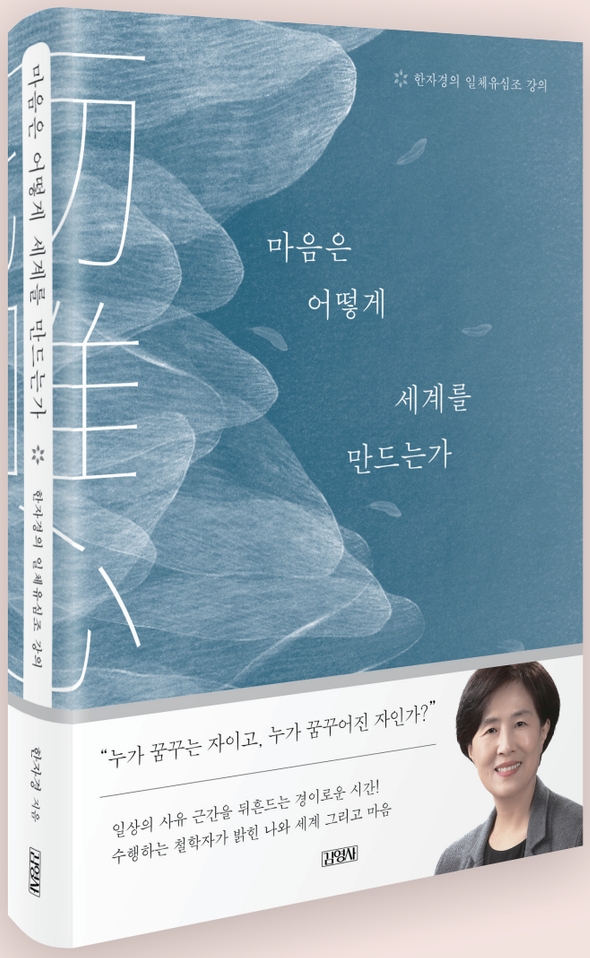
TEL.031-955-3100 www.gimmyoung.com 책은 서점에 있습니다.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마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인생의 꿈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다

| 한자경의 일체유심조 강의 |

마음은 어떻게 세계를 만드는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한자경 | 240쪽 | 14,800원

'공' '연기' '수행' '일체유심조' '공적영지'로 나와 세계 그리고 마음의 실상을 밝힌 다섯 번의 명강의

나와 세계에 대한 의심을 끝까지 밀고 나가다 보면 결국 닿게 되는 곳이 본래 마음자리다. 이 책은 그 길에서 든든한 동행자가 되어줄 것이다. **수불 스님 · 안국선원 선원장**

전문적 학식을 대중적 열망에 접목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 책은 모기 주둥이로 쇠를 뚫어온 독자들에게 뜻밖의 출구와 청량감을 선사할 것이다. **한형조 ·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한자경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교수. '나는 누구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왜 사는가' 그 답을 찾기 위해 동서양 철학을 종횡무진 넘나들며 40년이 넘도록 깊고 다양한 연구와 저술 활동을 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마음은 이미 마음을 알고 있다》, 《심층마음의 연구》(반야학술상), 《대승기신론 강해》(불교출판문화상대상), 《불교철학과 현대윤리의 만남》(원효학술상), 《불교의 무아론》(청송학술상), 《칸트와 초월철학》(서우철학상), 《실체의 연구》, 《성유식론 강해》 등이 있다.

본래 정해진 길, 그런 길은 없다
가면 열리는 길, 그런 길은 있다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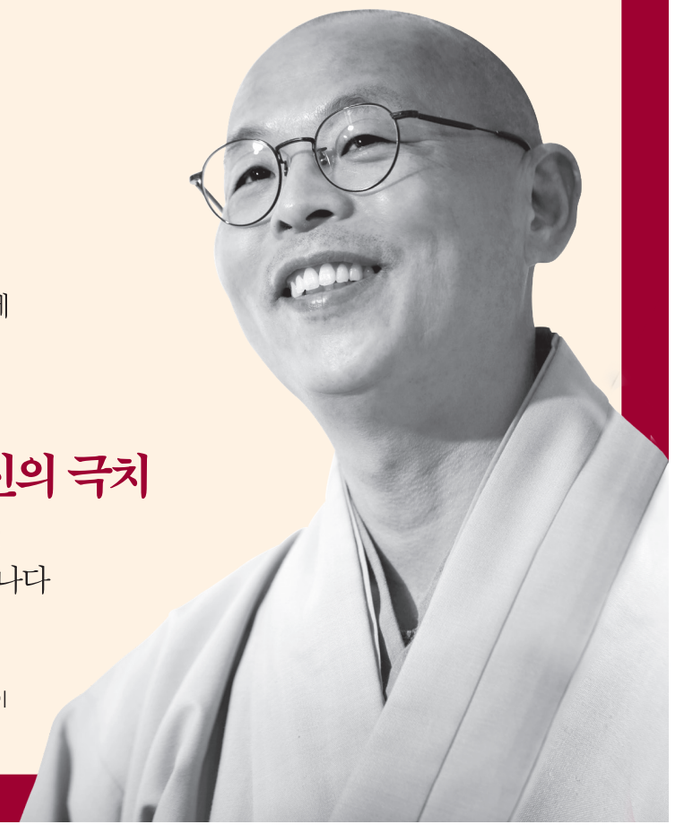
중심 中心

극단의 세상에서 나를 바로 세우다

법인은 설법하지 않는다. (…) 그러다 어느 대목에서 한마디 하는데 그 짧은 한마디가 괴로움으로 꽁꽁 뭉친 마음 한 귀퉁이를 죽비처럼 가격한다. **황지우 시인**

46년 출가의 길에서 길어올린 인문정신의 극치

고집불통 같은 중심이 아닌, 받아들이며 단단해지는 중심!
소중한 가치를 지키되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만나다



법인法忍 1976년 중학교 3학년 때 광주 향림사에서 출가했다.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 조계종 교육부장,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냈다. 2000년 해남 대흥사 수련원장을 맡아 '새벽숲길'이라는 프로그램을 열어 템플스테이의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실상사 대안학교에서 인문학을 가르치며, 월간 〈참여사회〉 편집위원장으로 일상에서 깨달음이 빛나는 삶을 추구하고 있다.